■전북발 AI 공포…전남 확산 방지 비상

불똥 튈까 노심초사 인접도로 긴급 방역

전북 김제시에서 발생한 조류독감 때문에 전북과 인접한 담양군 등 일부 지역 닭·오리 농장 농민들이 전염을 우려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4일 오전 담양군 금성면 덕성리 하수종말처리장 앞 국도에서 담양군 공무원들이 차량 방제작업을 펼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그렇지 않아도 닭 사료 값이 크게 오르고 갖은 질병 예방 때문에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은데 전북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조류독감·AI) 때문에 우리까지 된서리를 맞을까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양계농가 판매 위축 우려 한숨만

전북 김제시에서 발생한 조류독감이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AI(혈청형 H5N1)'로 판정돼 4일 살처분이 시작되자 이곳과 인접해 있는 전남지역 닭·오리 농가 농민들이 전전긍긍해 하고 있다. 아직 이 지역까지 전염되지는 않았으나 이로 인해 닭·오리고기 판매가 위축되는 등 향후 파장이 더 걱정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전북지역 농가에서 출하된 달걀의 경우 역학조사 결과 4일 현재 전량 전북·서울·경기지역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광주·전남지역에는 유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오전 11시께 담양군 금성면 덕성리 하수종말처리장 앞 국도에서는 전북 순창군에서 들어오는 차량을 상대로 방역작업에 한창이었다. 전날 조류독감이 발생한 지역에서 내려오는 차량을 통해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담양군 양계협회 김대주(60·수북면) 회장은 "올 겨울에 조류독감이 발생하지 않아 안도했었는데 느닷없이 인근에서 발견돼 암담하다"며 한숨부터 내쉬었다.

김 회장은 "그렇지 않아도 최근 곡물의 질이 떨어져 닭의 발육이 더딘 상태여서 판매도 늦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까지 발생해 손해를 보더라도 빨리 팔아야겠다"며 "부디 방제 작업이 하루빨리 끝나서 안정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과거 조류독감이 주로 겨울철에 발생했던 탓에 안심하던 농민들은 느닷없는 전북지역의 살처분 소식에 당황한 표정들이다. 갑작스런 조류독감 때문에 집중 소독은 물론 마을 사람들도 통제하며 혹시 모를 전염에 대비하고 있다.

장성군 삼서면 금산리에서 47만 마리의 닭을 키우고 있는 김찬호(51)씨는 "뜬금없는 조류독감 소식에 다들 긴장하고 있다. 가뜩이나 사료값이 급등해 어려운 형편인데 이 소식 때문에 달걀 판매가 줄어들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며 "소독을 계속 하고는 있어 감염될 염려는 없지만 혹시 모를 사태에 마음의 준비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4년 1월께 조류독감 때문에 1만4천 마리의 오리를 살처분 시킨 경험이 있는 민종환(63·나주시 산포면)씨는 "아직도 조류독감 얘기가 들릴 때마다 깜짝 놀란다"며 "전북지역과 거리가 있어 전염될 염려는 적지만 혹시 모를 사태에 긴장하며 오리에게 특수첨가제를 먹이며 소독을 하는 등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전남지역의 닭·오리 농가 수는 각각 1만3천·1천400 농가에 2천600만·440만 마리. 4일 전남지역에서 방제작업이 벌어진 곳은 담양, 장성, 영광 등 모두 5개군 10개소다. 전남도는 796개 공동방제단을 동원하고 시·군과 축협에 보유하고 있는 57대의 소독 방제차량을 총 동원해 닭, 오리농장을 대상으로 매일 1회 이상 집중 소독을 하기로 했다.

또 시군 공무원 및 수의사 등으로 구성된 380명의 예찰 요원을 동원, 전북 인접 시군과 과거 조류독감 발생지역인 나주와 집단 사육지역인 영암, 함평 등 3개 시군을 집중 관리대상 지역으로 지정하고 특별 예찰을 실시 중이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나원참 〈7475〉 김종두

다층은 건축·신원차재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시시 제작 및 상담환영
▶서울본사 : 02) 3445-0943
▶나주공장 : 061) 337-0571

예비군의 날 기념식 광주시와 광주시 방위협의회는 4일 오전 광주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박광태 시장과 강박원 시의회 의장·각 구청장·예비군 지휘관 등 6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40주년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를 가졌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광주 초등학교 여학생 학교에서 성추행 당해

경찰, 10대 용의자 추적

초등학교 여학생이 교내에서 10대 남학생에게 3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동부경찰은 광주시 동구 A초등학교에 다니는 B(9)양이 지난달 중순께 교내·외에서 10대 남학생으로부터 연쇄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이 남학생을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B양은 지난달 11일 점심시간에 학교 실외화장실에서 10대 남학생에게 성추행을 당했고, 나흘 뒤인 15일 점심시간에도 같은 장소에서 성추행을 당했다.

또 B양은 지난 18일 오후 2시20분께 학교 인근에서 같은 남학생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던 중 이를 목격한 주민의 도움으로 풀려났다.

사건 직후 B양의 상담치료를 진행하던 모 아동센터는 이 같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고, 학교 측은 재발방지를 위해 교내에 CCTV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3번이나 B양을 성추행한 10대 남학생이 동일인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이 진술한 인상착의를 토대로 탐문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술취한 여객선 선원이 수학여행 여고생 추행

목포해양경찰은 4일 수학여행을 다녀오던 여고생들을 성추행한 이 여객선 직원 A씨를 붙잡아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목포항으로 향하는 여객선 안에서 수학여행 중이던 모 여고 2학년생 4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솔 교사 B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에 취한 A씨가 여학생들을 추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가 속해 있는 선사 측은 성추행 여부와는 상관없이 여객선 안에서는 금주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어긴 A씨를 해고할 방침이다.

/목포=이상휴기자 lsh@

판사와 친분 내세워 돈 가로챈 40대 법원서 실형 선고

광주지법 형사2 단독 최영남 판사는 4일 판사와의 친분을 내세우며 개인파산 및 면책결정 등을 도와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최모(49)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최씨는 2006년 12월1일께 지인 이모씨에게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광주지법 판사에게 부탁해 파산신청을 하고 늦어도 3개월 안에 신용불량을 해제시켜주겠다"고 속여 경비 명목으로 15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또 경매된 아파트에서 살다가 이사한 이씨에게 소액보증금을 배당받도록 도와준다며 1천1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최권일기자 cki@

주말 나무심기 좋은 날

휴일은 한두차례 비

식목일인 5일은 대체로 맑고 따뜻하겠으나 휴일인 6일에는 한 두차례 비가 올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광주·전남지역은 주말인 5일 아침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나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다"고 밝혔다. 아침 최저기온은 1~9도, 낮 최고기온은 17~22도의 분포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휴일인 6일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흐리고 한 두차례 비가 오겠지만, 낮 최고기온이 14~17도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강필상기자 k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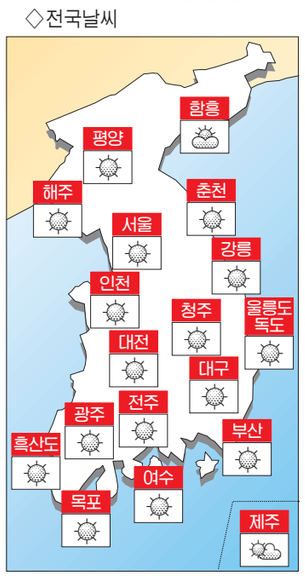
파릇파릇 식목일

4월 5일 (음 2월 29일) 날씨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며 대체로 맑겠다.

광 주	구름 조금	7~22℃
목 포	구름 조금	7~18℃
여 수	구름 조금	9~17℃
완 도	구름 조금	6~18℃
구 례	구름 조금	2~22℃
해 남	구름 조금	2~19℃
장 흥	구름 조금	1~20℃
고 흥	구름 조금	5~19℃
순 천	구름 조금	2~22℃
영 광	구름 조금	3~18℃
진 도	구름 조금	3~19℃
전 주	구름 조금	5~21℃
남 원	구름 조금	1~21℃
흑산도	구름 조금	7~15℃

◇전국날씨



서해남부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0.5~0.5m
먼바다=남서~서풍 파고 0.5~1.0m
남해서부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0.5~1.0m
먼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2.0m

목 포 밀물 01:21 13:41 썰물 06:45 19:04
여 수 밀물 08:37 20:56 썰물 02:17 14:39

▲해뜸 06:14 ▲해짐 18:57 ▲달뜸 05:22 ▲달짐 18:04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6(일)	7(월)	8(화)	9(수)	10(목)	11(금)
날 씨						
최저/최고	9/17	10/20	8/21	9/15	6/18	5/20

산불 주범은 담·뱃·불

지난해보다 11% 늘어

올해 발생한 산불의 주범은 담뱃불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산림청에 따르면 2008년 1월부터 3월까지 발생한 산불 162건 중 담뱃불 실화에 의한 화재가 25%(40건)에 달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에 11%(29건), 지난 10년간 평균 10%(24건)였던 것에 비해 2.5배나 높아진 것으로 식목일 등산객이나 성묘객의 화기 소지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된다.

산림청은 이같이 올해 담뱃불에 의한 산불이 급격히 늘어난 이유로 대선과 총선 때문에 화재방지에 대한 행정기관의 관심이 낮아진 점을 들었다. 대신 예년의 산불 주요 원인이었던 '논·밭두렁 소각'은 연초 농민들에 대한 영농교육을 통해 상당수 줄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올해 발생한 산불의 원인은 담뱃불에 이어 ▲입산자에 의한 원인 미상 화재 17%(28건) ▲ 논밭두렁 소각 17%(28건) ▲ 쓰레기 소각 12%(20건) ▲ 성묘객 실화 7%(12건) 등이다. /연합뉴스

중국산 사탕서 유해물질

발암성 논란 감미료 검출

중국산 사탕·캐러멜에서 발암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감미료가 검출됐다.

4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4~10일 서울시내 학교 앞 문구점 1곳과 문구도매점 4곳에서 사탕·캐러멜 102건(수입산 92건, 국산 10건)을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중국산 9개 제품에서 발암성 논란으로 사용이 금지된 '사이클라메이트'가 검출됐다.

사이클라메이트는 설탕보다 수십배 더 강한 단맛을 내는 백색 결정 형태의 합성 감미료로 유럽연합(EU), 중국 등지에서는 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와 미국 등지에서는 발암 논란이 있어 사용이 금지돼 있다.

특히 중국산 캐러멜인 '판떼기 딸기맛' 등 3개 제품은 사이클라메이트 뿐만 아니라 사카린나트륨도 동시에 검출됐다. 사카린나트륨은 사탕과 과자류에는 사용할 수 없고 김치 등 일부 식품에만 제한적으로 사용이 허가돼 있다.

이밖에 '투시팝 미니어처'라는 제품은 포도껍질에서 추출한 천연색소를 사용했다고 포장지에 표시를 했지만, 내용물에서는 인공색소도 검출됐다고 시 보건환경연구원 측은 밝혔다. /연합뉴스

부녀자 성폭행 미수 몽골인 붙잡아 조사

여수경찰은 4일 밤길을 걸어가는 여성을 위협해 성폭행하려 한 몽골인 C(27)씨를 강간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 3일 밤 10시40분께 여수시 봉산동 한 거리에서 혼자 걸어가던 A(여·41)씨를 흉기로 위협, 인근 공터로 끌고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A씨가 소리를 치며 끌려가는 것을 목격한 인근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C씨는 한국에 입국한 지 불과 10일밖에 안 지난 상황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고깃배를 타기 위해 여수에 내려온 것으로 밝혀졌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결혼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6월부터 실시

교육 받으면 귀화 필기시험 면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4일 "한국 국적 취득을 원하는 결혼 이민자들을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6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금까지 결혼 이민자가 귀화를 신청하면 필기시험을 면제해줬으나 이들이 한국어 이해 능력이 부족하고 사회 적응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일자 2009년 1월 1일부터 귀화 신청자는 누구나 예외 없이 필기시험을 치르도록 한 바 있다.

하지만 6월부터 시작될 예정인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최대 200시간까지 참여하면 예전처럼 귀화적격 심사 단계 중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2007년 1월 1일 이후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들은 내년 1월부터 귀화를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 이전에 미리 교육을 받아 놓으면 그만큼 국적 취득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며 "간단한 테스트를 거쳐 교육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펀드투자 날린 돈 받아내려 납치

쌍나팔

○…펀드투자로 일확천금을 노리던 주부들이 투자금을 모두 날리게 되자 투자 중개인을 납치·감금하고 돈까지 빼앗았다가 경찰서행.

○…서울양천경찰은 4일 펀드에 투자해 큰 손실을 보자 중간에서 투자를 도맡아 처리했던 중개인을 납치·감금하고 금품까지 빼앗은 김모(63)씨 등 주부 4명과 사례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심부름센터 직원 2명을 강도상해 혐의로 입건.

○…김씨 등은 지난해 프리랜서 투자상담사로 일하는 김모(49)씨를 통해 펀드에 3억원 가량을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보게 되자 같은 해 11월 중순과 지난 3월께 두 차례에 걸쳐 김씨를 차로 납치한 뒤 3~8일간을 경기도 일대 야산 등으로 끌고 다니며 8천여 만원을 빼앗은 혐의.

○…주부 김씨 등은 경찰에서 "선물거래상담사 자격증이 있는 김씨를 믿고 돈을 맡겼는데 투자금을 모두 날렸다는 말만 하고 나중에는 연락조차 되지 않았다"며 "정말 죽고 싶은 심정에 범행했다"며 선처를 호소. /연합뉴스